

020/200

# 新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

다 푼 학생은 42번 다시 시간 충분히 써서 논리적 단서 잡아보십시오.

역시 논리적으로 복수정답이며, 성립되지 않습니다.

42번 문제 다시 고민해봅시다.

정답이 명확히 나오나요?

절대 아닙니다. 우선 마지막 단락 정리합니다.

현대 사회의 사회적 공연의 요소들로는 성과 속의 분류 체계를 다양하게 구체화한 ①대본, 다양한 대본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실행하는 ②배우, 계급·출신 지역·나이·성별 등 내부적으로 분화된 ③관객, 시·공간적으로 다양한 동선을 짜서 공연을 무대 위에 올리는 ④미장센\*,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공연을 광범위한 관객에게 전파하는 상징적 ⑤생산 수단, 공연을 생산하고 배포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총체적으로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고도로 분화된 ⑥사회적 권력 등이 있다. 그러나 요소의 분화와 자율성이 없는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국가 권력에 의한 대중 동원만 있을 뿐 사회적 공연이 일어나기 어렵다.

\* 미장센(mise en scène) : 무대 위에서의 등장인물의 배치나 역할, 무대 장치, 조명 따위에 관한 총체적인 계획과 실행.

42번 보기 봅시다.

<보기>

수려한 경관으로 유명한 A시에 소각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A시의 시장은 정부의 보조금을 활용하여 낙후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소각장을 유치하였다고 밝혔다. A시 시민들은 반대파와 찬성파로 갈려 집회를 이어 갔다. 반대파는 지역 경제 발전에는 찬성하지만 소각장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고, 찬성파는 반대파가 지역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의견이 갈려 토박이와 노인은 반대 운동에, 이주민과 젊은이는 찬성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중앙 언론은 이 사건이 지역 내 현상이라며 아예 보도하지 않았다. 반대파는 반대 운동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 서울에 가서 집회를 하려 했지만 경찰이 허가를 내 주지 않았다.

② 공연의 요소들이 융합되어 가치의 일반화가 일어났군.

단락 소주제는,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강조. 따라서 답됩니다. (이 풀이법은 차차 설명드립니다!)

③ 출신 지역과 나이로 분화된 관객이 배우로 직접 나서고 있군. 배우/관객이라 판단 됩니다.

⑤ 배우들이 지역 경제 발전에는 동의하면서도 서로 다른 대본을 가지고 공연을 수행하는군.

역시 판단 됩니다.

④ 상징적 생산 수단과 사회적 권력이 공연의 전국적 전파를 막으려 하는군.

뭔가 이상합니다!

지문 근거 : 전파하는 생산수단

보기 연결 : 생산수단은 중앙언론으로 판단 가능

질문 : 중앙언론이 막으려 했나요?

그냥 지역 내 현상이니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보도를 하지 않은 것이,

막으려는 의도가 있는 건가요?

중요하지 않아서 보도를 안 하면,

그것이 전파를 막는 행위인가요?

또한, 사회적 권력? 뭐죠? 경찰권력인가요? 아니면 찬반집단권력인가요?

또한 그 권력을 경찰권력이라 본다면,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이, 막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명명 백백한 논리적 근거가 되나요?

### 논리적으로 판단 되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간단합니다.

판단하기에 정보가 불충분하니까요.

그렇게, 예전처럼, 지문 근거해서 선지 논리 하나 하나 다 판단 하라는 의도의 문제가 더 이상 수능 국어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깨달아야합니다.

또한,

① 공연의 미장센이 A시에 한정되어 펼쳐지고 있군.  
 지문 근거 미장센은 배경 같으니 맞네요...?  
 어...맞나요?  
 <보기> 봅니다.

반대파는 반대 운동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 서울에 가서 집회를 하려 했지만 경찰이 허가를 내 주지 않았다.

자, 판단해보세요.

사람들은 A시에만 머물렀나요,  
 아니면 서울로 확장하려는 시도를 했으니, 서울에 영향이 하나  
 도 안 간 거라서, A에만 머문 거로 봐야 하나요?

판단 잘 되나요?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능 국어 시험,

25년이 지난만큼 초창기의 논리학적 언어학적 성격에서 완전히 벗어나, 국어교육학 독자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이 된 것입니다.

언어학, 논리학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확인됩니다!

## 수능 국어의 창조적 파괴.

## 재건축 시작합니다.

## 접근법은 공식.

## 공식은 암기.

2014 개정수능 이후,

### <2017~ 확립된, 수능 독서의 공식>

#### 독서 지문,

#### 평가원의 정보처리 '규격'

1. 주제 : 첫단락 + 두 번째 단락 첫부분  
(특히 첫끝 + 두첫) + 흐름 잡기
2. 구조 : 문장 = S O C Ad V, 반복 강조 체크
3. 구조 : 문단.글 = 글의 구성원리, 글의 전개방식  
+ 표지집중, 구조 잡기 => 내용 자동 처리
4. 출제 양상 : 원리, 정보군집, 제재별 특성 활용

위의 접근 공식을 적용하면 정말 난이도 낙차가 푹 떨어집니다.

평가원, 저자가 독자에게 전달하려고한 내용. 바로 주제

사람들은 함께 모여 '집합 의례'를 행한다. ㉠ 뒤르켐은 오스트레일리아 부족들의 집합 의례를 공동체 결속의 관점에서 탐구한다. 부족 사람들은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생계 활동을 멈추고 자신들이 공유하는 성(聖)과 속(俗)의 분류 체계를 활용하여 이 상황이 성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속된 것인지를 판별하는 집합 의례를 행한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공유하는 성스러움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고 그것을 중심으로 약해진 기존의 도덕 공동체를 재생한다. 집합 의례가 끝나면 부족 사람들은 가슴속에 성스러움을 품고 일상의 속된 세계로 되돌아간다. 이로써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에 불과했던 생계 활동이 성스러움과 연결된 도덕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내용 : 계속 반복되는 주제 흐름. 바로 집합의례입니다.

구조 : 과정 그래서 넘버링 해주시면 편합니다.

① 속(생계) ⇨ ② 문제상황 ⇨ ③ 성vs속 ⇨ ④ 성=도덕 재생  
 결국 위의 핵심정보 반복입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나머지 단락에서도 마찬가지.

뒤르켐은 현대 사회의 집합 의례가 기존 **도덕 공동체의 재**생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도덕 공동체를 **창출**할 것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프랑스 혁명은 자유, 평등, 우애와 같은 새로운 **성스러움**을 창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덕 공동체**를 구성한 **집합 의례**다. 뒤르켐은 새로 창출된 **성스러움**이 자기 **이해관계를 추구**하며 **속된 세계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에게 서로 결속할 수 있는 **도덕적 의미**를 제공할 것이라 여긴다.

㉠파슨스와 스멜서는 이러한 이론적 통찰을 기능주의 이론으로 구체화한다. 그들은 **성스러움**을 **가치**라는 말로 바꿔 표현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가치가 **평상시 사회적 삶** 아래에 잠재되어 있다가, 그 도덕적 의미가 뿌리부터 뒤흔들리는 **위기 시기**에 위로 올라와 전국적으로 일반화된다. **속된** 일상에서 사람들은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자기 **이해관계**를 구체화한 목표와 이익 실현을 안내하는 규범에 따라 살아간다. 하지만 **위기 시기**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들의 특수한 **이해관계**에서 보편적인 **가치**로 상승한다. 사람들은 가치에 기대어 위기가 주는 심리적 긴장과 압박을 해소하는 **집합 의례**를 행한다. 그 결과 사회의 통합이 **회복**된다. 파슨스와 스멜서는 이것이 마치 유기체가 환경의 압박으로 인해 흐트러진 항상성의 기능을 생리 작용을 통해 회복하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본다.

㉡알렉산더는 파슨스와 스멜서의 이론을 받아들면서도 그들이 사용한 생물학적 은유가 복잡한 현대 사회의 집합 의례를 탐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 대안으로 '사회적 공연론'을 제시한다. 그는 가치를 전 사회로 일반화하는 집합 의례가 현대 사회에서는 유기체의 생리 작용처럼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정해지지 않은 과정이라고 본다. **현대 사회는 사회적 공연의 요소들이 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요소가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요소들을 융합하는 사회적 공연은 우발성이 극대화된 문화적 실천을 요구한다. 알렉산더가 기능주의 이론과 달리 공연의 요소들이 어떤 조건 아래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융합이 이루어지는지 경험적으로 세밀하게 탐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대 사회의 **사회적 공연의 요소들**로는 성과 속의 분류 체계를 다양하게 구체화한 대본, 다양한 대본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실행하는 배우, 계급·출신 지역·나이·성별 등 내부적으로 분화된 관객, 시·공간적으로 다양한 동선을 짜서 공연을 무대 위에 올리는 미장센\*,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공연을 광범위한 관객에게 전파하는 상징적 생산 수단, 공연을 생산하고 배포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총체적으로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고도로 분화된 사회적 권력 등이 있다. 그러나 요소의 분화와 자율성이 없는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국가 권력에 의한 대중 동원만 있을 뿐 사회적 공연이 일어나기 어렵다.

정리하면?

A급 정보 (가장 가치 높은 정보)

집합의례

B급 정보 (가장 가치 높은 정보에 밀접하게 처리해야 하는 정보)

1 단락 T+I.A (Topic+Information Architecture)

D(뒤르켐의 견해) 집합의례 + 과정

- 1 속(생계) ⇨ 2 문제상황 ⇨ 3 성vs속 ⇨ 4 성=도덕 재생

2 단락 T+I.A (Topic+Information Architecture)

D(뒤르켐의 견해) 비교

- 1 속(생계) ⇨ 2 문제상황 ⇨ 3 성vs속 ⇨ 4 성=도덕 재생 + 4 성=도덕 공동체 창출

3 단락 T+I.A (Topic+Information Architecture)

P(파슨스와 스멜서 견해) 덧붙임

- 1 속(이해관계) ⇨ 2 위기시기(문제상황) ⇨ 3 성(가치)vs속(일상) ⇨ 4 가치 일반화 = 성(도덕 재생) : 필연적 (유기체 항상성 회복)

4 단락 T+I.A (Topic+Information Architecture)

A(알렉산더 견해)와 비교

- 1 속 ⇨ 2 위기시기(문제상황) ⇨ 3 성vs속 + 사회적 공연 요소 ⇨ 4 가치(성)의 일반화는 : 우연적 (왜 이것을 우연적/필연적으로 읽는지는 문제에서 상술)

C급 정보 (나머지 가치 떨어지는 정보) => 필요시 발췌독

5 단락 T+I.A (Topic+Information Architecture)

A(알렉산더 견해) 중 사회적공연 요소 상술

다시 정리하면

집합의례는

(속에서 살다가 문제가 터지면)

성 vs 속 => 성

답 고롭시다.

첫 문항은 일반적으로

내용 + 구조

즉 주제 + 전개방식 묻는 문항입니다.

38.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중심 화제에 대해 주요 학자들이 합의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합의? 없습니다.

뒤의 학자가 확장 부연 했죠...

여기서 잠깐.

제가 설명을 할 때 선지 하나 하나에 대한 설명을 하긴 합니다.

물론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쓰는 방법 중 하나,

선지 하나 하나를 따지긴 하지만,

그것은 수단이지, 풀이의 목적이 아닙니다.

즉 이미 우리의 머릿 속에는

A급+B급 가치의 정보

집합의례는

(속에서 살다가 문제가 터지면)

성 vs 속 => 성

선택 집중된 상황에서, 이 정보를 근거로 판단을 할 뿐이지,

선지 하나 하나 따지는게 아닙니다.

- ② 중심 화제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제시한 후 두 견해를 절충하고 있다.

상반 견해 없구나!

- ③ 중심 화제에 대한 이론이 후속 연구에 의해 보완되는 과정을 고찰하고 있다.

맞네?

뒤르켐 => 파슨스 => 알렉산더. 정답!

즉, 일대일대응이니, 일치니, 하는 방법으로 와리 가리 하나 하나 따지고 확인하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보를 이해 못했고,

처리가 안 되었고,

그러니 선지 - 지문 와리 가리 해서 하나씩 따질 수 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런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봄직한 풀이를 하고 있냐구요.

다음 문항 역시 주제와 관련됩니다.

주제는?

A급+B급 가치의 정보

집합의례는

(속에서 살다가 문제가 터지면)

성 vs 속 => 성

39. '집합 의례'에 대해 ㉠이 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족 사회는 집합 의례를 행하여 기존의 도덕 공동체를 되살린다.

집합의례 : 성 vs 속 => 성 = 기존의 도덕 공동체

- ② 집합 의례를 통해 사람들은 생계 활동의 성스러운 의미를 얻는다.

집합의례 : 성 vs 속(생계) => 성

- ③ 현대 사회에서는 집합 의례를 통해 새로운 도덕 공동체가 형성된다.

집합의례 : 성 vs 속(생계) => 성

- ④ 공동체 성원들은 집합 의례를 거쳐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묶인다.

이해관계 = 속... 속으로 귀결? 너 오답!

- ⑤ 집합 의례의 과정에서 공동체 성원들은 문제 상황을 성 또는 속의 문제로 규정한다.

집합의례 : 성 vs 속(생계) => 성

보이시나요? 주제 집중하면 의미있는 정보처리가 되고, 출제자가 설계한 문제풀이가 되니 바로 답이 나옵니다.

역시 주제

다음 문항 역시 주제와 관련됩니다.

A급+B급 가치의 정보

집합의례는

(속에서 살다가 문제가 터지면)

성(가치) vs 속 => 성(가치 일반화)

40. 위키 지기에 일어나는 상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람들이 관심을 속에서 성으로 옮긴다.

바로 정답. 끝.

성(가치) vs 속 => 성(가치 일반화)

주제 집종의 힘이 보이시나요?

41. 윗글의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단락 T+I.A (Topic+Information Architecture)

P(파슨스와 스펠서 견해) 덧붙임

- ① 속(이해관계) ⇨ ② 위키시기(문제상황)
- ⇨ ③ 성(가치)vs속(일상) ⇨ ④ 가치 일반화 = 성(도덕 재생)

: 필연적 (유기체 항상성 회복)

4단락 T+I.A (Topic+Information Architecture)

A(알렉산더 견해)와 비교

- ① 속 ⇨ ② 위키시기(문제상황)
- ⇨ ③ 성vs속 + 사회적 공연 요소 ⇨ ④ 가치(성)의 일반화는

: 우연적

정리하면

㉠필연적 vs ㉡우연적

- ① ㉠과 달리 ㉡은 현대 사회의 집합 의례는 그 결과가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정답 바로 나오네요.

참고로,

파슨스 견해 필연적

알렉산더 견해 우연적으로 보는 이유는

파슨스는 유기체의 항상성 유지와 같다 그랬습니다.

즉, 우리는 다치거나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필연적인 반면에

알렉산더는 그 복잡한 요소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

결과가 결정되지 않는다 그랬으니

우연적

이라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누군가는

“있는 그대로 읽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반문할 수 있으나.

종교 경전인가요?

성경인가요?

진리인가요?

무엇보다, 지문 내용 그대로 묻는, 그대로 가져와 묻는 문제 있습니까?

숨은 단어 찾기 아니라고 했쥬?

수능 국어 시험 범위도 모르는데

왜 수능국어시험에 대해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다고 착각하쥬?

이제 문제의 42번

42. 윗글에서 설명한 '사회적 공연론'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려한 경관으로 유명한 A시에 조각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A시의 시장은 정부의 보조금을 활용하여 낙후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조각장을 유치하였다고 밝혔다. A시 시민들은 반대파와 찬성파로 갈려 집회를 이어 갔다.

=> 여기까지 : 문제상황 (또는 위키시기) 성 v 속 대립

반대파는 지역 경제 발전에는 찬성하지만 소각장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고, 찬성파는 반대파가 지역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의견이 갈려 토박이와 노인은 반대 운동에, 이주민과 은이는 찬성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여전히 갈등

중앙 언론은 이 건이 지역 내 현상이라며 이에 보도하지 않았다. 반대파는 반대 운동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 서울에 가서 집회를 하려 했지만 경찰이 허가를 내 주지 않았다.

여전히 갈등. 해결은 없네요?

즉, 성vs속 까지만

=> 성(가치 일반화) 없जू?

바로 답 2번 보이네요?

- ① 공연의 미장센이 A시에 한정되어 펼쳐지고 있군.
- ② 공연의 요소들이 융합되어 가치의 일반화가 일어났군.

A급+B급 가치의 정보

집합의례는

(속에서 살다가 문제가 터지면)

성(가치) vs 속 => 성(가치 일반화)

주제 집중하니 바로 답이 보입니다!

- ③ 출신 지역과 나이로 분화된 관객이 배우로 직접 나서고 있군.
- ④ 상징적 생산 수단과 사회적 권력이 공연의 전국적 전파를 막으려 하는군.
- ⑤ 배우들이 지역 경제 발전에는 동의하면서도 서로 다른 대본을 가지고 공연을 수행하는군.

즉, 아까 설명했듯이, 논리적으로 보면 4번선지도 정답이 될 수 있으나, 평가원의 현행 수능 설계대로 정보처리하면 답이 바로 보입니다.

# 수능 국어의 창조적 파괴.

이제 우리는 기존의 낡은 언어영역 접근법 재건축 시작합니다.

접근법 = 공식.

공식 = 암.기. 적용!

2014 개정수능 이후,

## <2017~ 확립된, 수능 독서의 공식>

독서 지문,  
평가원의 정보처리 '규격'

1. 주제 : 첫단락 + 두 번째 단락 첫부분  
(특히 첫끝 + 두첫) + 흐름 잡기
2. 구조 : 문장 = S O C Ad V, 반복 강조 체크
3. 구조 : 문단.글 = 글의 구성원리, 글의 전개방식 + 표지집중, 구조 잡기 => 내용 자동 처리
4. 출제 양상 : 원리, 정보군집, 제재별 특성 활용

# 국어 영역

2018학년도 9월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은따옴표**

사람들은 함께 모여 '집합 의례'를 행한다. ㉠ 뒤르켐은 오스트레일리아 부족들의 집합 의례를 공동체 결속의 관점에서 탐구한다. 부족 사람들은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생계 활동을 멈추고 자신들이 공유하는 성(聖)과 속(俗)의 분류 체계를 활용하여 이 상황이 성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속된 것인지를 판별하는 집합 의례를 행한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공유하는 성스러움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고 그것을 중심으로 약해진 기존의 도덕 공동체를 재생한다. 집합 의례가 끝나면 부족 사람들은 가슴속에 성스러움을 품고 일상의 속된 세계로 되돌아간다. 이로써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에 불과했던 생계 활동이 성스러움과 연결된 도덕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뒤르켐은 현대 사회의 집합 의례가 기존 도덕 공동체의 재생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도덕 공동체를 창출할 것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프랑스 혁명은 자유, 평등, 우애와 같은 새로운 성스러움을 창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덕 공동체를 구성한 집합 의례다. 뒤르켐은 새로 창출된 성스러움이 자기 이해관계를 추구하며 속된 세계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에게 서로 결속할 수 있는 도덕적 의미를 제공할 것이라 여긴다.

㉡ 파슨스와 스멜서는 이러한 이론적 통찰을 기능주의 이론으로 구체화한다. 그들은 성스러움을 가치라는 말로 바꿔 표현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가치가 평상시 사회적 삶 아래에 잠재되어 있다가, 그 도덕적 의미가 뿌리부터 뒤흔들리는 '위기 시기'에 위로 올라와 전국적으로 일반화된다. 속된 일상에서 사람들은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자기 이해관계를 구체화한 목표와 의의 실현을 안내하는 규범에 따라 살아간다. 하지만 위기 시기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들의 특수한 이해관계에서 보편적인 가치로 상승한다. 사람들은 가치에 기대어 위기가 주는 심리적 긴장과 압박을 해소하는 집합 의례를 행한다. 그 결과 사회의 통합이 회복된다. 파슨스와 스멜서는 이것이 마치 유기체가 환경의 압박으로 인해 흐트러진 항상성의 기능을 생리 작용을 통해 회복하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본다.

㉢ 알렉산더는 파슨스와 스멜서의 이론을 받아들면서도 그들이 사용한 생물학적 은유가 복잡한 현대 사회의 집합 의례를 탐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 대안으로 '사회적 공연론'을 제시한다. 그는 가치를 전 사회로 일반화하는 집합 의례가 현대 사회에서는 유기체의 생리 작용처럼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정해지지 않은 과정이라고 본다. 현대 사회는 사회적 공연의 요소들이 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요소가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요소들을 융합하는 사회적 공연은 우발성이 극대화된 문화적 실천을 요구한다. 알렉산더가 기능주의 이론과 달리 공연의 요소들이 어떤 조건 아래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융합이 이루어지는지 경험적으로 세밀하게 탐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대 사회의 사회적 공연의 요소들로는 성과 속의 분류 체계를 다양하게 구체화한 대본, 다양한 대본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실행하는 배우, 계급·출신 지역·나이·성별 등 내부적으로 분화된 관객, 시·공간적으로 다양한 동선을 짜서 공연을 무대

주장, 인물 전개방식

위에 올리는 미장센\*,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공연을 광범위한 관객에게 전파하는 상징적 생산 수단, 공연을 생산하고 배포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총체적으로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고도로 분화된 사회적 권력 등이 있다. 그러나 요소의 분화와 자율성이 없는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국가 권력에 의한 대중 동원만 있을 뿐 사회적 공연이 일어나기 어렵다.

\* 미장센(mise en scène): 무대 위에서의 등장인물의 배치나 역할, 무대 장치, 조명 따위에 관한 총체적인 계획과 실행.

- ① 중심 화제에 대해 주요 학자들이 합의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 ② 중심 화제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제시한 후 두 견해를 절충하고 있다.
- ③ 중심 화제에 대한 이론이 후속 연구에 의해 보완되는 과정을 고찰하고 있다. **D뒤→P파→P-S→A알 OK!**
- ④ 중심 화제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한 후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있다.
- ⑤ 중심 화제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다양한 가설들의 의의와 한계를 평가하고 있다.

**집합 의례: 속 vs 성 →성**

39. '집합 의례'에 대해 ㉠이 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족 사회는 집합 의례를 행하여 기존의 도덕 공동체를 되살린다. **속 vs 성 →성**
- ② 집합 의례를 통해 사람들은 생계 활동의 성스러운 의미를 얻는다. **속 → 성**
- ③ 현대 사회에서는 집합 의례를 통해 새로운 도덕 공동체가 형성된다. **속 vs 성 →성**
- ④ 공동체 성원들은 집합 의례를 거쳐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묶인다. **속**
- ⑤ 집합 의례의 과정에서 공동체 성원들은 문제 상황을 성 또는 속의 문제로 규정한다. **성 vs 속**

40. '위기 시기'에 일어나는 상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람들이 관심을 속에서 성으로 옮긴다.
- ② 사람들이 목표와 규범 차원에서 행동한다.?
- ③ 사람들이 생계 활동을 위한 최적의 수단을 찾는다.
- ④ 사람들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기 상황을 외면한다.
- ⑤ 사람들이 평상시 추구하던 삶의 도덕적 의미를 상실한다.

정보량 순서 과정 단계

41. **필연**의 ㉠과 **우연**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달리 ㉡은 현대 사회의 집합 의례는 그 결과가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 ② ㉠과 달리 ㉡은 집합 의례가 가치의 일반화를 통해 도덕 공동체를 구성할 것이라 본다.
- ③ ㉡과 달리 ㉠은 집합 의례가 발생하는 과정을 경험적으로 탐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 ④ ㉠과 ㉡은 모두 문화적 실천으로서의 집합 의례를 유기체의 생리 과정과 유사하다고 본다.
- ⑤ ㉠과 ㉡은 모두 현대 사회에서는 성과 속의 분류 체계 없이 집합 의례가 일어난다고 본다.

42. 밑글에서 설명한 '사회적 공연론'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수려한 경관으로 유명한 A시에 소각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A시의 시장은 정부의 보조금을 활용하여 낙후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소각장을 유치하였다고 밝혔다. A시 시민들은 반대파와 찬성파로 갈려 집회를 이어 갔다. 반대파는 지역 경제 발전에는 찬성하지만 소각장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고, 찬성파는 반대파가 지역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의견이 갈려 토박이와 노인은 반대 운동에, 이주민과 젊은이는 찬성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중앙 언론은 이 사건이 지역 내 현상이라며 아예 보도하지 않았다. 반대파는 반대 운동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 서울에 가서 집회를 하려 했지만 경찰이 허가를 내 주지 않았다.

- ① 공연의 미장센이 A시에 한정되어 펼쳐지고 있군.
- ② 공연의 요소들이 융합되어 가치의 일반화가 일어났군. **성 vs 수**
- ③ 출신 지역과 나이로 분화된 관객이 배우로 직접 나서고 있군.
- ④ 상징적 생산 수단과 사회적 권력이 공연의 전국적 전파를 **만으려** **힘을군** **논리** **첩근지** **복수** **정답**
- ⑤ 배우들이 지역 경제 발전에는 동의하면서도 서로 다른 대본을 가지고 공연을 수행하는군.

정보량 많으면=> 1. 주제 + 2. 구조